

#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

-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

정인숙\*\*

## 〈차례〉

1. 머리말
2. ‘노년’과 ‘여성’ 그리고 ‘몸’
3. 노년기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
  - 1)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서의 아픈 몸 : 인생 회고와 내면의 고백
  - 2) 아름다움을 상실한 낯선 몸: 자신과 타인간의 공감대 형성
  - 3) 게으르고 얽치없는 추한 몸: 서술자의 시선과 대상인물의 인식간의 거리
4.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규방가사에 나타난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 또는 ‘아픈 몸’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수유 등의 경험이나 고된 가사노동의 수행을 통해 몸의 변화나 몸의 고통 등을 더 분명하고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고, 규방가사를 통해 형상화된 노년기 여성의 몸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년기 여성이 자신의 아픈 몸을 문제화한 <노탄가>, <생조감구가>, <수심탄> 등에서는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서 몸을 인식하는 특징이

\* 이 논문은 제11차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하계워크숍 ‘여성과 몸’(2010.7.8, 성신여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 토론을 맡아 주신 김수경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인문학국) 연구교수

발견된다. 여기서의 아픈 몸은 단지 노화라는 자연스런 생물학적 변화라기보다는 작자의 고단한 인생사를 반영한 결과로서 인식된다. 현재의 아픈 몸에는 지나온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노년기 여성이 다른 여성의 늙은 몸을 형상화한 <귀소술회가>에서는 아름다움을 상실한 낯선 몸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무엇보다 아름답던 예전의 모습과 대조되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등 외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노부인의 행동을 관찰 서술한 <노부인가라>에서는 게으르고 염치없는 추한 몸으로서 노년기 여성이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지저분한 생활습관이나 음식 욕심, 주책없는 행동거지 등이 문제시된다.

노년기 여성 스스로 인식하는 아픈 몸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장애’로서 매우 절박하게 그려져 있다. 아픈 몸과 더불어 외로움과 적적함도 부수되어 더욱 문제시된다. 이와는 달리 노년기 여성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몸을 바라보는 경우,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노화된 몸을 낯설게 인식하면서도 같은 여성으로서 ‘연민’의 시선을 유지하고 결국 타인과 자신을 아우르는 ‘우리’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런가 하면 서술자의 시선으로 노년기 여성의 게으르고 추한 몸을 문제 삼은 경우, 표면적으로 포착된 모습과는 달리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 젊은이들에게 소외되고 싶지 않은 노년의 욕망이 발견된다. 염치없고 주책없어 보이는 노부인의 형상 속에서 오히려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자존감이 확인되고 이는 노부인을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 존재로 재인식하게 하는 해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핵심어: 노년, 여성, 몸, 늙은 몸, 아픈 몸, 자존감

## 1. 머리말

본 논의의 출발점은 최근 남성 작자가 자신의 생애를 서술하고 의미화한 작품을 검토하면서 그 가운데 노년기 작자의 자기고백과 내면 성

찰을 주목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sup>1)</sup> 죽음이 멀지 않은 인생의 중반부에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보는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세계관과 사적인 자기 고백이 드러나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과 육체의 고통을 호소한 홍원장의 <상심화전가>는 심각하게 다가왔는데, '탄로가'류 혹은 '백발가'류 작품에서 포착되는 해학적이고 희화화된 노년의 형상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체적 고통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어 노년을 접근하는 하나의 코드로 '아픈 몸'에 주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늙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문학을 통해 어떻게 그려지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나이 들어 '늙은 몸' 또는 '아픈 몸'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되, 앞선 연구에서 남성의 노년에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여성의 노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물론 고전문학에서 '노년'이나 '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먼저 노년(노인 혹은 늙음)에 대한 연구로는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sup>2)</sup>를 포함하여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을 검토한 연구,<sup>3)</sup> 사설시조에 표현된 노년의 형상화 양상을 고찰한 연구,<sup>4)</sup> 정약용의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를 노년의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재조명한 연구<sup>5)</sup>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문학에서 '일상성'이 주목되면서 사대부가사에 나타난 일상성의 한 양상으로 노

- 1)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 2) 서영숙,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 3) 윤영옥,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 『한민족어문학』 제3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1.
- 4) 이수근, 「노년의 형상화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조선후기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 5) 박혜숙, 「정약용의 『老人一快事』와 노년의 양식」,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학회, 2009.

년의 코드가 검토된 적도 있다.<sup>6)</sup> 그러나 “실제 현실이나 문학텍스트에서 노년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연구에서는 ‘노년’이나 ‘노년성’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sup>7)</sup>고 지적된 바와 같이 노년이라는 주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듯하다.

한편 ‘몸’은 최근 학계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학에서 문제 삼는 몸은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전근대 텍스트에서 ‘병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검토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sup>8)</sup> 최근에는 ‘고전문학과 몸’을 기획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sup>9)</sup> 여러 문학 장르를 통해 몸의 담론이 논의되었다. 그 가운데 질병과 관련한 논의<sup>10)</sup>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아픈 몸’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 여기서는 한국한시의 특징적 경향으로 타인의 병든 몸에 대한 비속한 시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고 이런 점이 속담, 판소리, 가사에서 비하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 시라는 장르가 서정양식에 속하고 심미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타인의 질병보다는 자신이 앓는 질병에 시선을 집중했다고 논의하였다.<sup>11)</sup>

그런데 가사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몸에 대한 인식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몸과 나이 들어 아픈 몸(병든 몸)은 그 인식에 차이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예를 들어 <노처녀가>의 경우 주인공인 노처녀는 얼굴은 곰보이고 눈은 애꾸

6) 박경주, 「18~19세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난 일상성의 양상-구강, 흥원장, 위백규의 작품에 나타난 노년, 여성, 가족의 코드를 중심으로-」,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7) 박혜숙(2009), 앞의 논문, 241면.

8)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9)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에서는 2009년 2월 ‘고전문학에서의 몸’이라는 기획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0) 김동준, 「질병 소재에 대처하는 한국한시의 몇 국면」, 『고전과 해석』 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11) 위의 논문, 77면.

에다가 귀, 팔, 다리마저 불편한 여성 장애인이다. 그녀에 대해 주변 인물들은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이에 상처받은 그녀 역시 결국 자신의 몸을 비하하고 자조하는 시선을 취하게 된다.<sup>12)</sup> 이와는 달리 '백발가'류로 분류되는 일련의 작품에서 남성의 목소리로 묘사되는 '노인'의 형상은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럽다. 그런가 하면 <상심화전가>에서는 노년의 늙은 몸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가 발견되기도 한다.

가사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욕구를 가능하게 한 장르였고 특히 18세기 이후 삶의 다양한 국면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통로로 기능했다고 볼 때<sup>13)</sup> 노년의 모습을 담아내는 방식도 다양하리라 생각한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수유 등의 경험 또는 고된 가사노동의 수행을 통해 몸의 변화, 몸의 고통 등을 더 분명하고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규방가사를 통해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노년'과 '여성' 그리고 '몸'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노년' '여성' '몸'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에 주목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키워드와 관련한 철학적 · 사회문화적 이론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종종 두 개 혹은 세 개가 결합되어 논의되기도 할 것이다.

먼저 '노년'의 코드에서 주목해 보자. 유교적 질서를 따르는 동양적 전통에서 노인은 대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존경받는 존재로 여겨졌다.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노인은 배려되고 존중

12) 박희병(2003), 앞의 논문, 319~321면.

13) 정인숙(2009), 앞의 논문, 70면.

되었다. 이와는 달리 서양의 경우에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노년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최근 프랑스 역사학자 조르주 미누아(Georges Minois)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문명에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서양 역사에서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조명하였다.<sup>14)</sup> 노년에 대한 이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인간 조건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르네상스시대에 노년의 추함, 늙은 여성의 노쇠함이 비판되면서 늙은 여성을 비난하고 심지어 마녀로까지 형상화했던 점이 주목된다. 그 당시 시나 희곡, 회화 등에서는 늙은 여성을 추악하고 흉한 모습으로 형상화한 경우가 많았는데, 물렁하고 주름진 가슴살이 빠져나온 모습<sup>15)</sup> 혹은 이빨이 빠지고 악취를 풍기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는가 빛깔 잃은 썩은 고기 혹은 까마귀의 전리품으로 비유되기도 했다.<sup>16)</sup>

이러한 노년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 형상은 우리 문학에서도 발견되기에 더욱 눈여겨 볼 점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독일의 평론가 한나로레 슐라퍼(Hannelore Schlaffer)가 노년의 문제를 철학적·문학적·미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sup>17)</sup>에서도 발견되는 점이다. 여기서는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문학과 철학 그리고 실생활에 등장하는 노년의 현상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품위 없는 늙은 여자’라는 장에서 노년 여성의 육체적 노화를 적나라하게 조롱한 시를 인용하면서<sup>18)</sup> 관능적인 매력이 사라진 노년 여성이 문학에서

14)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김소라 역, 『노년의 역사』, 아모르판디, 2010.

15)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쿠엔틴 마시스의 <못생긴 공작부인>은 늙은 여인을 야유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그리려 했던 당시의 풍조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이다(위의 책, 455면 참조).

16) “...숨 쉬는 미라/ 속이 들여다보이는 살갗으로/ 몸속을 훤히 알 수 있구나/ 메마르고 앙상한 몸뚱이를/ 어느 가게에 가져다놓으면/ 무식한 이발사를 유식하게 만들어 주리라.../ 죽음의 산 초상, 삶의 죽은 초상/ 빛깔 잃은 썩은 고기, 무덤의 거죽/ 땅 위로 드러난 해골, 까마귀의 전리품”(위의 책, 457면, 시고뉴의 시 재인용)

17) 한나로레 슐라퍼, 김선형 역, 『노년의 미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5.

18) “...그대의 이미는 이미 깊은 고랑처럼 주름이 잡혀있지.../ 그대가 풍만한 젖가슴

형상화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런가 하면 고대 로마 최고의 웅변가이자 정치가이자 문인이었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가 남긴 글도 의미심장하다.<sup>19)</sup> 그는 여기서 노년이 불행하게 보이는 네 가지 이유를 들고 그것을 통렬히 비판하였다.<sup>20)</sup> 이 글은 키케로가 죽기 1년 전인 62세 때 쓴 것으로 시기상으로는 무척 오래되었으나 노년의 미덕을 피력한 점에서 현대인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62세 때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쓴 글이 주목할 만하다.<sup>21)</sup> 여기서는 노년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르게 인식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노년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사회적 구성물'임을 강조한다. 특히 노년이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타인과의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점이 중요하다.

노년은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노인을 어떤 색다른 부류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나인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던 말인가?”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젊다고 느끼는 한 당신은 젊은 거예요.” 그러나 이

---

을 가졌다면 나를 자극하겠지만/ 그대의 시들은 가슴은 마치 암말의 그것과 같으니/ 축 늘어진 배, 부어오른 듯한 장딴지에/ 그리도 자랑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시들은 허벅다리여!”(위의 책, 151면, 호라츠의 시 재인용)

19) 키케로, 오홍식 역, 『노년에 관하여』, 궁리, 2002.

20) ‘노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육체는 쇠약하지만 정신으로 이루어진 중요하고 유익한 일거리가 있다고 반박했고, ‘노년이 되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 노년이 되면 체력 없이 이행될 수 없는 의무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하지 않고 노년에는 원숙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노년이 되면 쾌락을 즐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육체적 쾌락이나 욕망에서 멀어지는 것은 오히려 은총으로 노년의 정신적인 쾌락이야말로 중요하다고 했고, ‘노년이 되면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마치 오랜 항해를 한 뒤 마침내 항구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21) 시몬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책세상, 2002.

것은 노년의 복잡한 진실을 몰랐을 때 하는 말이다. 노년의 진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존재와 그것을 통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갖는 자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나에게 있어서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은 타자, 즉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나이다. 그 타자가 바로 나인 것이다.<sup>22)</sup>

보부아르에 의하면 노년은 결코 정태적이지 않고 상당히 다양하며 가변적이다. 이는 어떤 과정의 결말이면서 또한 연장이다. 그런 점에서 늙는다는 개념은 변화의 개념과 직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을 인생의 특혜 받은 시기로 간주하고 노년은 경험과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보부아르는 늙은 여인이 역사적으로 비하되고 배제되어 왔지만 중국의 경우 한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대접받았던 점에 주목하고, 노년은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할 것을 역설하였다.<sup>23)</sup>

한편 ‘여성’의 코드와 관련해서는 그 이론적 범위가 워낙 방대하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몸’과 관련된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여성주의 지리학자인 질 발레타인(Gill Valentine)과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의 논의를 통해 역사적으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정리하고 몸을 공간으로서 이해하려는 시각을 검토하고자 한다.<sup>24)</sup> 계몽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특정한 생물학적 속성 특히 월경, 출산, 수유 등을 통해 남성과 다르고 열등하다는 점이 자명하게 받아들여졌다. 여성은 자연에 가까운 존재로 대지, 대자연과 자주 연결되어 이해되었다. 여성은 몸에 밀접하며 몸에 의해 통제된다고 이해되는 반면 남성은 몸을 단순히 의식을 담는 그릇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들의 체현을 초월한다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정신과 몸(신체)

22) 시몬 드 보부아르(2002), 앞의 책, 393면.

23) 같은 책, 23면.

24) 질 발레타인, 박경환 역, 「신체」, 『사회지리학』, 논형, 2009 ;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의 구분은 젠더화 되어 정신은 합리성, 의식, 이성, 남성성과 같은 긍정적인 용어와 결합된 반면, 몸은 감성, 자연, 비합리성, 여성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와 결합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자연적'인 몸은 존재하지 않고 생물학적 속성도 과학 또는 그 외의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몸을 사회적 실천에 의해 각인되는 표면으로 이론화했는데, 몸은 담론적으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들 속에서 작용하고 이 장치들은 당연시되는 실천들을 낳고 이 실천 속에서 몸의 훈육과 표준화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재생산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몸에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속성 내지 본질이 있다고 보는 본질주의적 사고에 대해 사회구성론자들은 자연적인 육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몸은 언제나 문화적으로 지도화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코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질 발레타인과 린다 맥도웰 역시 몸과 정신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와 이해의 네트워크 속에서 몸이 맺는 관계성,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여러 이론적 성과를 정리하고 한국문학에서 여성의 몸이 생산되는 방식을 분석한 연구 성과도 눈여겨 볼만하다.<sup>25)</sup>

한편 '몸'의 코드와 관련해서는 주로 '아픈 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린다 맥도웰은 '부적절한 곳(out of place)'에 있는 몸으로서 '임신한 몸'과 '아픈 몸'을 들고 있다.<sup>26)</sup> 여기서는 몇몇 사례 연구를 인용하여 '임신은 투명한 자아 통일성이 와해되는 몸의 경험'으로서 많은 임신부들이 그들의 몸과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 간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 극단적으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여성에게 있어 몸의 변형은 임신했을 때 말고도 아프거나 체중이 늘어날 때 그리고 '노년기'에도 나타나는데, 이 때 몸은 '짐'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25)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 시각·쟁점·역사』, 창비, 2005.

26) 린다 맥도웰(2010), 앞의 책, 111~116면.

여기서 건강한 몸-정상적인 몸-유능한 몸, 아픈 몸-비정상적인 몸-무능한 몸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진다고 할 때 노년의 몸은 후자의 연결고리에서 이해될 수 있다. 흔히 ‘늙고’ ‘병들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사용되듯 늙은 몸과 아픈 몸(병든 몸)은 그 관계가 밀접하다. 실제로 ‘순수한 상태의 노화’란 거의 없을 정도로 노화와 질병은 서로 관계가 깊어 질병은 노화를 가속시키고 노령은 병리학적 장애가 생길 여건을 마련한다. 실제로 고령의 노인들은 만성적인 여러 가지 복합 질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늙은 몸은 대개 아픈 몸이고 비정상적인 몸이며 무능한 몸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 늙은 몸은 비정상적인 동시에 정상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27)</sup> 이는 나이 들어 노쇠해지는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정상적인 변화로 보는 점에서 그러하다. 가사작품에 있어서도 노년기의 늙은 몸/아픈 몸은 작자가 살아온 인생이나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형상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작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 3. 노년기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

#### 1)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서의 아픈 몸 : 인생 회고와 내면의 고백

여기서 살펴볼 작품은 노년기 여성이 자신의 아픈 몸을 문제화한 것이다. <노탄가>, <생조감구가>, <수심탄>이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27) “노쇠를 건강한 상태와 질병의 중간 상태로 설정한 갈레노스의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노인은 정상적이면서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스스로를 아직도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불편하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노쇠 현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장애의 해명인 것이다.”(시몬 드 보부아르(2002), 앞의 책, 396면)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표현되는 '몸'은 단지 노화라는 자연스런 생물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작자의 고단한 인생사를 반영한 결과로서 인식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아픈 몸에는 지나온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 현재의 몸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먼저 <노탄가><sup>28)</sup>는 “일반적인 탄로가의 유형이면서 신병(身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29)</sup>고 한 작품 해제에서 보듯, 노년의 탄식 가운데 특히 아픈 몸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작품이다. 고령의 여성은 아닌 듯하나<sup>30)</sup> 몸으로 느끼는 노쇠함은 그 정도가 심상치 않다.

소문업시 오난빅발 소문업시 늘거지고/ 절물디의 곱든살리 주름살리  
고이허다/ 늘난양은 설잔어나 아픈양이 더욱셀다/ 즈고식며 헛두통이 기  
동모의 박힌듯고/ 선경갓치 발든눈이 독가루를 스인듯다/ 도화양협 곱든  
을골 춤외곳히 피여난뎡/ 오미구든 조흔넙맛 시운춤이 원일인고/ 총명조  
튼 이너정신 반등신이 도야구나/ 팔다리를 뵈넙듯고 저리기난 무슨일고/  
빅병업시 잘떡든이 얼는하면 잘치호고/ 박씨갓흔 이너이을 어난뉘가 다  
빅갓나 먹을슈가 전혀업다/ 선선한뎡 찻든몸이 뜨신뎡만 츠즌안소/ 흥통  
복통 곁히신이 싱기난 업셔지고/ 오난거시 즈분이라 능정기도 거지업다  
기어림이 붓그럽다/ 늘거들랑 아조늘거 상노인이 되엇거나/ 점거들랑 아  
조절머 기운이 여상크나/ 늘도점도 아이호고 아픈뎡도 만흔지고/ 등짐도  
지고왔나 허기증도 즈로난다/ 전의업든 현기증도 즈로난다/ 먹은나이 할  
슈잇나 어와 설운지고/ 부모상이 설다한들 몸아픈뎡 드설을가/ 효즈현부  
잇다흔들 소소지증 다알손가/ 공귀골몰 아쳐롭다/ 살거들랑 강영호고 아  
푸거든 아조죽어/ 북망산천 편키누어 초목동부 호고저라<sup>31)</sup> <노탄가>

28) 『규방가사-신변탄식류-』(권영철 편저,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의 33번 작품이다.

29) 위의 책, 306면.

30) 작품에서 “늘도점도 아이호며 몸아푸기 지일셀다”라거나 “늘거들랑 아조늘거 상노인이 되엇거나 점거들랑 아조절머 기운이 여상크나”라고 하여 나이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 듯하나 몸은 이미 노화되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31) 본고에서 작품 인용 상의 밑줄은 모두 필자가 표시한 것임을 밝히고 이후 작품 인용에는 반복해서 밝히지 않고자 한다.

젊었을 때 곱던 얼굴이 주름살 많은 얼굴로 바뀌는 몸의 변화는 견딜 수 있지만 평범한 일상 자체를 위협하는 몸의 장애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늙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아픈 것이 더욱 서럽다’ ‘부모상(父母喪)이 서럽다 한들 몸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울까’ 등의 구절을 통해 그 고통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작품 해제에는 “자신의 늙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해학적으로 읊고 있”<sup>32)</sup>다고 하였으나 실제 ‘아픈 몸’이 묘사된 대목을 보면 그렇게 가볍게 읽혀지지 않는다. 헛두통이 심해 마치 기둥 모서리에 박힌 듯하고, 눈에 독가루가 들어간 듯하고, 입맛도 없으며, 총명하던 정신도 흐려져 반등신이 된 듯하다. 팔다리가 저리고, 뱃병 없던 사람이 걸핏 하면 잘 채하고, 치아가 다 빠져 먹을 수도 없다. 선선한 데 찾던 몸이 따뜻한 데만 찾고, 흥통 복통이 겹해 있으며, 잠만 계속 와 게을러지고, 전에 없던 현기증까지 자주 나타난다. 이런 몸의 증상은 급기야 ‘살거들랑 강녕하고 아프거든 아주 죽어 북망산천에 편히 누어 초목동부(草木同腐)<sup>33)</sup> 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낳게 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만큼 몸의 고통은 심각하게 그려져 있다.

엇지타가 늘거져나 연약심장 어일디에/ 모여상이 그리울적 누슈기워  
 늘거지고/ 성득구고 시딕스이 조심것히 늘거지고/ 싱산못한 즈궁으로 촌  
 촌간장 늘거지고/ 청운시절 흥안박명 붓거려워 늘거지고/ 친시부모 말리  
 길의 호천망극 늘거지고/ 가산닷축 호빈햐 허다걱정 늘거지고/ 인간의  
 스텨도야 효후동목 직일이요/ 일가화목 조큰마난 인정못서 이들햐다/ 문  
 전옥답 즈진흥연 아픈디도 만들시고 <노탄가>

그러면 죽음까지 생각하게 한 아픈 몸은 과연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상노인도 아니면서 유독 몸의 고통이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작자

32) 권영철 편저(1985), 앞의 책, 306면.

33) ‘초목동부’란 초목과 함께 썩어 없어짐을 뜻한다.

는 그 이유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결혼으로 인해 친정과 분리되던 시점에서부터 찾고 있다. 어릴 적 시집와서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다 보니 늙었고, 시부모 모시는 시집살이 조심하다보니 늙었으며, 아이를 낳지 못하여 마음고생 하다 보니 늙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홍안박명(紅顏薄命)이 부끄러워 늙었고, 친부모와 시부모가 죽고 호천망극(昊天罔極)<sup>34)</sup>에 애달파서 늙었으며, 문전옥답(門前沃沓)에 흉년이 자주 들어 걱정하다보니 아픈 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저런 걱정과 슬픔으로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고 그런 고단한 삶의 흔적이 아픈 몸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조감구가><sup>35)</sup>는 노년기 여성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회고한 장편가사이다. 1870년에 태어나 1930년 회갑을 맞기까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한 점이 특징적이다. 일찍이 한말의 부패한 집권층을 비판하고 일제에 적대감을 드러내며 개화문명에 대한 비평의식을 드러낸 개화기 서사가사로서 조명된 바 있다.<sup>36)</sup>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노년의 코드로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형대와 즈녀손아 헛부고 슬푸구나 녹십일년 덧업도다/ 인싱칠십 고래  
희를 예스로 드러더니 편시춘몽 이아니나/ 삼오이팔 청춘시절 여제른 듯  
하것마는 어나사이 빅발인고/ ... 근근고고 일평싱애 풍상도 만홀시고/  
천슈만한 스러시니 적산포병 삼십여년/ 알푸기도 그지업고 괴롭기도 한  
량업다/ 금일명일 하든명이 녹십일년 다쳐스니 인명치천 분명하다

<생조감구가>

34) '호천망극'이란 하늘이 크고 넓어 끝이 없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은혜가 크고 다함이 없음을 뜻한다.

35)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1970)에 소개된 작품이다. 원제는 '생조감구가'이나 현대어법에 맞춰 '생조감구가라 표기하기로 한다.

36)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시고-생조감구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

위는 작품의 서두부분이다. 회갑을 맞아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한갓 봄날의 꿈같이 덧없고 슬프기만 하다고 탄식한다. 평생 동안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천수만한(千愁萬恨)이 쌓여 포병(抱病)한지 30여년이 되다 보니 아픈 것도 심하고 괴롭기도 한이 없다고 토로한다. ‘오늘 내일 하던 명이 61년이 되었으니 인명재천이 분명하다’고 한 것을 보면 그동안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생명이 위독했던 순간도 여러 차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즈녀의 도흔말노 회혼을 후기하나/ 늑뎡의 병짓터니 불스약 뉘구하라/  
진황한무 위력으로 불스약 못어더서 만세고인 되어스니/ 나는엇편 사람  
이라 장싱불스 바랄소나/ ... 적적한 빈방안에 무료히 독좌하니 소슬한풍  
식로와라/ 흥장이 시린후는 고산심곡 폭포갓치/ 치는다시 쫓는눈물 감당  
키 어렵구나/ ... 구운몽이 무어시며 속향전이 무어시고/ 스광지총 이주  
지명 침침칠야 되어잇고/ 설부화용 도턴얼굴 천주름 만주름이/ 여토환형  
빅발이라 난식도 돌보잔코/ 추성갓흔 나의안광 쓴봉스가 다되엇쇼/ 열손  
가락 무용이니 옛말일너 부절업고/ 잠도아니 좃는물건 빅병이 지릭하니  
염나사즈 너아니나 <생조감구가>

회갑에 모인 자녀들은 이후 돌아올 회혼(回婚)을 기약하지만 정작 온갖 병으로 아픈 몸은 후일을 장담할 수 없게 한다. 적적한 빈 방안에 무료하게 혼자 앉아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다. 사광지총(師曠之聰)<sup>37)</sup>과 이주지명(伊周之明)<sup>38)</sup>은 어디로 가고 침침칠야(沈沈漆夜)에 눈뜬 봉사가 되다 보니 구운몽, 속향전도 읽을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도 허락하지 않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아픈 몸, 불편한 몸은 노년에 겪는 외로움, 적

37) ‘사광지총’이란 중국 진나라의 악사인 사광(師曠)이 음조를 듣고 잘 판단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귀가 예민함을 뜻한다.

38) ‘이주지명’이란 중국 은나라의 재상 이윤(伊尹)과 주나라의 재상 주공(周公)의 총명함을 뜻한다.

적함에 더하여 비탄의 심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심탄><sup>39)</sup>은 70세 노년 여성의 인생을 담은 작품이다. <노탄가>나 <생조감구가>의 여성과는 달리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듯하나 말년에 갑작스럽게 찾아 온 질병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인간사적 다했스니 섭섭할것 업것마는/ 어젠날 초월청춘 얼푼빅발 윈 일인고/ 심중자탄 헛부구나 빅슈광음 뉘붓드리/ 어옛븐 여러손증 어라만 저 벗을삼아/ 동서각집 단니면서 세석왕니 이젓드니/ 조물이 시기한지 경진연 츄구월에 내몸익회 윈일인고/ 무병약질 몸의실어 고향의 침익하니/ 인간만스 부운이라 불철쭈야 위급하니/ 효즈현부 천정귀효 오날까지 부지하니/ 골슈의 밋친근원 우금철삭 되었스니/ 천의만약 무익하니 기거 운동 극난하니/ 쭈스의탁 싱각히도 신명득죄 무어신고 <수심탄>

‘인간사적 다했으니 섭섭할 것 없다’는 발언에서 지나온 삶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문가에 시집와서 자녀를 잘 길러 손자, 증손자까지 두고 동서로 여러 집을 다니며 지내왔으니 당연히 그럴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몸에 액회(厄會)를 당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천의만약(千醫萬藥)이 무익(無益)하여 거동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평싱 지난경역 벽상의 취몽인 듯/ 분명흔 전싱스라 만스만염 헛부도 다/ 남창을 반개하고 천일을 겨오보니/ 정원의 피난미화 나를보고 웃건 마는/ 일편슈심 너모양이 옛날보든 너아니라/ 몸은비록 여즈오나 사시의 조흔경물/ 친우짜라 소풍하고 윈근의 변화출입/ 츄축단윈 하였스나 디가의 쭈모되어/ 티산갓흔 허다소임 변할길 업섯스니/ 구둥의 심쳐하여 직임을 감슈하고/ 심중의 정한마음 육심연만 물어주고/ 현정이 퇴거하야

39) 『규방가사-신변탄식류』(권영철 편저(1985), 앞의 책)의 36번 작품이다. 원제는 ‘슈심탄’이나 현대어법에 맞춰 ‘수심탄’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쌍당학발 해로하고/ 정전의 옥수방난 허당화로 희롱하고/ 새새로 양신가  
 절 화조월식 구경코져/ 슈삼동지 체결하고 상유만경 보전하여 싱슈물영  
 하잣더니/ 천천몽위 이너몸이 당서화편 뉘기러고 <수심탄>

여기서는 수심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옛날의 ‘나’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난 세월을 회고한다. 어릴 적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으나 결혼을 계기로 ‘대가의 주모(主母)’가 되면서 상황은 돌변하게 된다. 한 가문의 안주인에게 주어진 ‘태산 같은 허다 소임’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고 결국 구중(九重) 심처(深處)하여 직임을 감수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참고 지내고 나서 노년에는 즐겁고 안락하게 살기를 기대했건만 다리에 병이 들면서 문제에 직면한다. 그 발병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앞서 ‘조물이 시기했는지’라고 하여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에 서술된 ‘대가의 주모’로서 감당해야 했던 수십 년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슬프다 이너몸이 당년칠십 되었스니 서산의 날일체라/ 한다리 독병들  
 어 반치동작 못히보고/ 왕복이 무상하니 열효즈가 밧드은들 인간상황 무  
 어시고/ ... 경향의 핫튼자손 면면이 보고져라/ ... 만사만염 헛부도다 천  
 의가 감동하여/ 일신의 악한독질 조금만 가감쥬어/ 삼스가 분순집의 한  
 두번 다시도라/ 사느즈미 보게되면 사부의 여한이라 <수심탄>

저물어 가는 서산의 해처럼 70세의 늙은 몸은 슬프고 처량하게만 느껴진다. 게다가 다리에 독병이 든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향에 흠어져 사는 자손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노년의 즐거운 일상이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곧 삶 자체가 무미건조해지는 것이다. ‘악한 독질이 조금만이라도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자손들을 찾아 둘러보고 ‘사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녘에 토로하는 소박하면서도 솔직한 내면의 고백이라 생각된다.

## 2) 아름다움을 상실한 낯선 몸 : 자신과 타인간의 공감대 형성

흔히 여성들은 신체 즉 건강, 젊음, 아름다움에 의해 정의되어 왔고 여성에게 있어 늙어간다는 것은 곧 아름다움의 상실과 동일시되어 왔다.<sup>40)</sup> 따라서 노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의 상실이라고 보기도 한다.<sup>41)</sup> '청춘홍안 곱던 얼굴 주름살이 웬일인고' '감태같이 검은머리 백발이 웬말이냐' 등의 표현이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젊음의 상실 즉 늙음의 도래가 가장 직접적으로 자타에게 각인되는 지점이 바로 주름살 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같은 외적인 변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년에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낯설게'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타인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노년기 여성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의 늙은 몸을 아름다움을 상실한 몸으로 인식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귀소술회가><sup>42)</sup>는 80세 여성이 결혼 후 만나지 못했던 친정의 형제 중반들을 50년 만에 만나 그 소회를 서술한 작품이다. 오랜만에 형님들을 만나 반갑고 기쁘면서도 너무 늙어버린 모습에 당황하게 된다.

오미불망 전전반측 그려보든 우리중반 한자리의 다모였네/ 천고미분 이모임이 경사가 아닐년가/ 반갑기도 그지업고 한심하기 짝이업다/ 세월 이야 흘넛건만 변형을 무산일고/ 님년세월 오십년의 그다지도 변탄말가/ 전형은 남웃시느 모습이 여히하다/ 화용얼티 고운얼골 침침쭈름 잡혀잇고/ 팔자출산 두귀밧히 상설이 분분하다/ 삼단갓치 거문머리 파뿌리가 되었구나/ 옥빈홍안 단순호치 방불한곳 전혀업네/ 울음반 웃음반의 손을 잡고 들어안자/ 면면상고 바라보니 한숨이 절노난다 <귀소술회가>

40) 한네로레 슬라퍼(2005), 앞의 책, 26면.

41) 위의 책, 154면.

42) 『규방가사-신변탄식류』(권영철 편저(1985), 앞의 책)의 38번 작품이다. 원제는 '귀소술회가'이나 현대어법에 맞춰 '귀소술회가'라 표기하기로 한다.

오매불망 전전반측 하며 그리던 친정 형제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니 반가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세월이 흐른 탓에 예전의 미모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용 월태(花容月態), 옥빈홍안(玉鬢紅顏), 단순호치(丹脣皓齒)로 상징되는 청춘시절의 모습에서 칙칙 주름 잡힌 얼굴에 파뿌리 같은 머리를 한 노년으로의 변화는 ‘한숨이 절로 나게’ 한다.

오순성성 안성형님 침향정 희당화가 이층이실 먹음은듯/ 단아하든 그 자티가 차자불길 전혀업고/ 년년요요 년홍윤실 낙양의 목단화가 화월동 풍 활작피여 탐스럽듯 그자티도/ 소실한풍 찬바람의 자치을 감춤킨나/ 여요정정 관말정실 서호의 홍매화가 옥창박게 불것는듯 담박한 자태거동/ 풍우한설 못이겨서 시들대로 시들었니/ 어엿불사 하춘신실 정면의 황국화가 양춘가절 자랑하듯 창희명주 분명트니/ 인싱공노 못이겨서 허슈하기 녹는구나/ 단아하든 강평강실 후원의 장미화가 사양사창 희롱난듯 아리싸운 자티거동/ 서리막고 눈이마자 옛모습 전혀업다/ 적화김실 요렴자질 군자호구 품부로서/ 방호방당 한쌍년자 반겨한 모습으로/ 오불 불염 하든티도 동몽전형 전혀업다/ 부유갓흔 우리인싱 빅년이 무상하다  
 <귀소술회가>

여기서 거명되는 여성들은 모두 요즘말로 하면 ‘한 미모’했던 인물들이다. 안성 형님, 연홍 윤실, 관말 정실, 하춘 신실, 강평 강실, 적화 김실 등은 젊었을 적 자태가 단아하고 아리뭇고 담박했으나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길 없다. 해당화, 목단화, 홍매화, 황국화, 장미화 등 갖가지 꽃의 형상으로 비유될 만큼 대단했던 그녀들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노년 여성은 무엇보다 아름다움이 상실된 타인의 몸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sup>43)</sup>

43) 물론 외모뿐만 아니라 귀가 어두워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점도 서술되나(“안성형아 거동보소 귀가먹고 안잣스니/ 평사낙안 저기력이 짝을이룬 형상이라 익들하고 민망하다”) 이것 역시 아름다움이 사라진 노년기 여성의 낯선 몸의 특성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허다골물 못이겨서 우리들은 늘것건만/ 만고호강 저저들은 무엇하다  
 늘단말고/ 세상사람 가든길의 무심하게 사라온다/ 형형식식 불만하다 강  
 동덕 모습보소/ 주류사양 전심관의 반달갓흔 그자티는 폐월수화 분명트  
 니/ 귀밋히 셔리치고 남치슈척 허황하다/ 바회덕 거동보소 단순호치 옥  
 빈홍안 침어낙안 그자티가/ 반기한 모란꽃치 아침햇빛 자랑트니 그모습  
 도 늘는구나/ 무주덕 모양보소 가을하늘 발근달이 창희의 솟았는듯/ 요  
 령한 그화용도 홍안백발 우습구나/ 억조창생 우리인심 늘글노짜 면할손  
 간 <귀소술회가>

작자는 허다한 고달픔 속에 살아온 사람이나 만고호강을 누리던 사  
 람이나 결국 늙는 것은 마찬가지로는 당연한 진리를 강동택, 바회택,  
 무주택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형형색색 화려하고 예쁘게 치장했  
 지만 늙은 몸 자체는 어쩔 수 없어 '홍안백발'과 같은 우스운 형상이 되  
 기도 한다. 억조창생 '우리' 인생은 결코 늙을 로(老) 자를 면할 수 없고  
 아름다움도 그저 한 때에 불과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확인함으로써 자  
 신과 타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공수래 공수거가 우리인심 아닐넌가/ 고래인사 이러하니 살아심전 즐  
 겨가며 신노심불 놀아보세/ 몸은비록 늘것시느 십오륙세 그마음이 백년  
 간들 사라지랴/ 오미불망 친정거름 마음노코 놀아보세/ 천만년을 산다하  
 도 일장춘몽 덧업건만/ 인간칠십 고래히라 칠팔십당 당두한몸 다시오기  
 어려워라/ 풍설중의 시든초목 명춘을 기약건만/ 우리인심 한번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후기약 어이하리 <귀소술회가>

아름답던 예전의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노년의 낯선 몸들은,  
 한 번 늙어버린 몸은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없고 결국 인생은 '공수래공  
 수거(空手來空手去)'요 '일장춘몽(一場春夢)'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타인의 몸을 바라보면서도 그 시선이 결코 타인에게만 머물지 않  
 고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는 것은, 친정에 걸음 한 번 하기 어려운 여성  
 으로서 공통된 운명에 놓여 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늙음의 문

제는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마지막 대목에서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임을 역설하면서도 명춘(明春)을 기약할 수 있는 초목과는 달리 후기약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는 웬지 서글픔이 묻어난다.

### 3) 게으르고 염치없는 추한 몸: 서술자의 시선과 대상인물의 인식 간의 거리

나이 들어 아픈 여성, 아름다움을 상실한 여성 이외에도 노년기 여성은 게으르고 염치없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노부인가라><sup>44)</sup>라는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2장에서 서양의 르네상스시대 문학 작품에서 늙은 여성이 추악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사례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노부인의 행동을 관찰 서술하는 방식으로 게으르고 염치없는 노인의 형상을 노골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노인이 더 이상 나이로 인해 무조건 존경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sup>45)</sup> ‘노인 비판형’ 가사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노인이라 해도 바른 몸가짐과 행실을 가져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적 측면이 부각된 것은 노부인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에 주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서술자의 일방적인 시선의 이면에 대상인물인 노부인의 자존감이 엿보이고 있어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서술자의 발화와 대상인물의 발화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인식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월이 여류하야 청춘시절 잠관이라/ 남즈든지 여즈든지 헛독땀기 늘

44) 『규방가사-신변탄식류』(권영철 편저(1985), 앞의 책)의 43번 작품이다.

45) 서영숙(1998), 앞의 논문, 110면.

난모양 보기실코 정니늬늬/ 그중이 안늘건니 웅총망총 늘난모양 드구더  
 늬 가관이라/ 도홍갓탄 두눈가이 자쥬션은 저원닐고/ 빅옥갓튼 살작이마  
 잔쥬림도 슈다호고/ 감티갓치 그문머리 은슈가리 혼턴덧고/ ... 치산골몰  
 칭탁하고 치장조츠 안니한다/ 두달석달 혼튼머리 쥬시갓치 지며은고/ 누  
 리츨츨 쓰문낫튼 사홀그리 시슈하고/ 창판갓탄 혼버션은 빅틀타서 기어  
 신고/ 풀기업는 현쳐마는 청낭씨 옷편닷시/ 위모가 저러하니 정신조츨  
 단명호늬/ 붓써림도 바이업고 쥬지만 너러간다 <노부인가라>

위는 서두부분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늙는 모양은 다 보기 싫지만 그  
 중에서도 '안늙은이'의 늙는 모양은 가관이라 하며 노부인을 비난하고  
 있다. 얼굴에 잔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에 백발이 희끗희끗한 몸 자체도  
 보기 싫을뿐더러 치산(治産)에 골몰한다는 핑계로 치장도 안하고 두 달  
 석 달 형클어진 머리 모양에 세수도 사홀에 한 번씩 하고 의복도 지저  
 분하게 하고 사는 것도 꼴불견이다. 게다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더욱 문제가 된다.

그중이 낮갑서로 병치리만 자조호늬/ 사랑양반 덕히안즈 온갓슈통 드  
 불인다/ 치운방이 잠을즈고 닝복이 발동호는가/ 방앗간이 구감호고 흥두가  
 도젧난고/ 기민업고 기미업서 밥흔술은 못먹거나/ 권혀리 너러치고 씬문  
 낫틀 쟁거리며/ 사랑양반 들어락고 서둘너서 하난말이/ 겹적츠 적간휘난  
 안초정이 명약니요/ 잉어붕어 맛난휘는 귀미들기 직일이요/ 스가고염 기  
 장국은 보신키가 직일리요/ 넙적넙적 찰꾸병이 풍도덤질 히안하다/ 찰수  
 집이 자반국은 바람병이 치안이라/ 달곰삼삼 찹살합쥬 환식나기 직이리  
 라/ 한나이나 만늬간니 업식이 작지호다/ 안직꺼정 무병하어 자식틀기  
 위조튼니/ 질삼을 강겹턴지 곡식을 강겹턴지/ 며느리도 덩안하고 연들도  
 미업잔군/ 혼자 골몰하니 업든병이 절노난다 <노부인가라>

서술자는 노부인이 낮값(나이 값)으로 '병치레도 자주 한다'고 하며  
 사랑양반(남편)에게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과 음식을 요구하는 노부인  
 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노부인은 자신이 '아직까

지 무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많은 데 아무도 챙겨 주지 않아 혼자 골몰하다보니 없던 병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소연한다.

어리석은 사랑양반 숙꼴갓치 널엄속아/ 그몸흐나 병이들면 집안모양  
안될가바/ 식상업는 아내갓치 말마다 시헝흐니/ 보기실코 늘난모양 그동  
이 양양흐다/ 일일마다 허락흐여 궁덩춤이 절노난다 <노부인가라>

노부인의 요구에 사랑양반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아내가 병이 들면 집안모양이 안될까 염려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처럼 말마다 시행하는 사랑양반의 태도를 서술자는 매우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내에게 휘둘리는 듯 보이는 사랑양반을 ‘어리석다’거나 ‘널름 속았다’고 표현한다. 그런 남편 덕에 노부인은 의기양양해져 엉덩이춤까지 저절로 출 정도로 신이 나는데, 가뜩이나 늙고 추한 모습도 가관인데다 남편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모습은 더욱 꼴불견으로 그려진다.

어화 저부인네 날을파라 염치사소/ 인역모양 모러그던 남을보아 기치  
소서/ ... 절무신네 논다흐며 청키전의 면져가서/ 언치헝연 즈시흐고 편  
안자리 가리안즈/ 밥이든지 죽이든지 쥬난티로 다흠치고/ 셉트럼 슈문반  
기 바람마저 피와니고/ 득기실은 진스설은 지미업시 혼즈흐니/ 동리사람  
절문네는 노자흐 것 후히로다/ 흐나들석 저부인네 동단디리 디경스서/  
벽상익 거러두고 이역모양 즈시보소/ 뉘가그리 조화하며 뉘가그리 반가  
오리 <노부인가라>

위는 작품의 결사부분이다. 젊은이들 노는 자리에 초청받기 전에 먼저 가고 나이 많은 것을 앞세워 편안한 자리를 가려 앉으며 뭐든 주는 대로 받아먹고 듣기 싫은 긴 얘기를 재미없이 혼자 하는 등 염치없고 주책없는 노부인의 모습이 열거된다. 그런 행태에 대해 서술자는 ‘염치를 사라’ ‘대경(大鏡)을 사서 벽에 걸어두고 자세히 보라’고 훈계하며 끝을 맺는다. 그러나 염치없고 주책없어 보이는 노부인의 행동을 면면

히 살펴보면 결코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 존재로 재인식하게 하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4.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앞서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장에서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아픈 몸에 주목한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일찍이 보부아르가 “타인의 노년은 삶의 대상이지만 자기 자신의 노년은 자기의 상태에 대한 산 경험과 관련된다”<sup>46)</sup>고 말한 것처럼 노년에 느끼는 육체적 고통은 지난 과거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주의 학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했던 미셸 푸코의 ‘표면으로서의 몸’ 또는 ‘육체적 각인’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몸은 각인의 표면 즉 우리가 정체성을 새기는 표면이자 다양한 제도적 양식에 의해 문화적 가치, 도덕성, 사회적 법률 등이 쓰이고 표현되고 흉터를 남기고 변형되는 표면”<sup>47)</sup>이라고 할 때, 노년기 여성의 아픈 몸은 삶의 궤적에 따라 상처받고 각인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노탄가>에 그려진 여성의 아픈 몸은 진지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두통, 흉통, 복통 등 온갖 질병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몸은 그녀의 정상적인 일상을 방해하고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는 『초당문답가』의 <백발가>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형상<sup>48)</sup>과는 성

46) 시몬 드 보부아르(2002), 앞의 책, 19면.

47) 질 발렌타인(2009), 앞의 책, 39면.

48) “정강이를 불작시면 비수검 날이 셔고/ 팔다지를 들고 보니 수양까지 흔들흔들/

격이 매우 다르다. 초당주인(소년)의 시선으로 묘사된 노인의 형상은 정강이에 살이 없어 뼈가 비수처럼 날이 서있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 수양버들처럼 흔들거리고, 어린 체를 허는지 콧물을 흘쩍대고, 누구와 이별하는지 눈물을 흘리고, 떡가래를 치는지 체머리를 흔들고, 술에 취했는지 비틀대며 걷는 식이다. ‘가관’이라고 할 정도로 웃음이 절로나게 하는 우스꽝스럽고 해학적인 형상이다. 초당주인이 아닌 노인 스스로 묘사하는 자신의 모습<sup>49)</sup>도, 외형적으로 포착되는 노화의 증상들이 대부분으로 정도는 덜하지만 역시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노탄가>에 그려진 늙은 몸은 여성 스스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증상들로 표현되어 있고 고단하고 신산한 여성으로서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더욱 애처롭고 절실하게 받아들여진다.<sup>50)</sup>

아리턱은 코을 치고 무루팍은 귀을 넘고/ 어린 체을 흐라는지 코물쫓차 흘쩍 흘쩍/ 놀과 이별 흐라는지 쌍안 눈물 무심 일고/ 등짐장사 흐라는지 지렁이는 어인 일고/ 떡가래을 치라는지 체머리는 무심일고/ 신평미주 취히든가 빗첫거름 가관 일네” <백발가>

- 49) “꽃갓치 곱든 얼굴 금버섯시 절노 나고/ 백옥갓치 희든 살이 황금불이 되야셔메/ 삼단갓치 쫓던 머리 다복쑤이 되야시며/ 증파갓치 막든 눈이 반판슈가 되야시며/ 청산유수가치 흐든 말이 반병어리 되야시며/ 정의말 듯든 귀가 만간풍우 뒤누우며/ 일행천리 흐든 거름 상도쑤치 먼져가고/ 살디갓치 곱든 허리 길마가지 방불 흐며/ 선슈박씨 갓든 이가 목탁쑤이 되야시며/ 단사갓치 곱든 입이 이운 박곳 되엇구나” <백발가>
- 50)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던 분위기가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는 갑자기 희석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부모가 죽는 것보다 내 몸 아픈 것이 더욱 서럽다고 할 정도로 몸의 고통을 토로하다가 ‘가소롭다 이 세월이 근심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며 ‘다음에 우리 부모 귀동자로 환생하여 오복겸전(五福兼全) 부귀공명 자손만당(子孫滿堂) 설치하세’라고 청유형으로 마무리하는 대목은 왠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이는 몸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다른 목소리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이 작품을 액자구조로 본다면, 처음 서두에서 서술자가 동유들에게 꽃놀이를 권유하고 그 다음 노년 여성의 몸 아픈 사연이 소개되고 결사부분에서 서술자가 위로하며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 여성의 사연에서 ‘생산하지 못한 자궁으로 촌촌간장 늘거지고’라고 하여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 고생했던 대목이 나오다가, 결사부분에서는 ‘슬하 내외 금동옥녀 단중하다’라고 한 대목이 있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물론 뒤늦게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럴 경우 내용이 그다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한편 <생조감구가>의 여성 역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천수만한'이 쌓여 30여 년간 질병에 시달린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아픈 몸과 더불어 부각된 문제는 외로움과 적적함이다. 그 밝던 눈이 침침해져 소설을 읽을 수도 없고 빈 방안에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눈물이 '폭포같이' 흐를 정도이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그녀가 꿈꾸는 소박한 노년의 삶이었다면 현재의 상황은 몸도 주변 여건도 이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 <수심탄>의 여성 역시 아픈 몸으로 인해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이 불가능해진 점이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경향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자손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노년의 즐거움이었기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노년기 여성의 아픈 몸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장애'로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앞서 린다 맥도웰이 '아픈 몸'을 '부적절한 곳'에 있는 몸으로 해석하고 몸이 차지하는 공간 간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 극단적으로 불편해하고 부적절하게 느끼는 점을 지적한 것과 연관될 수 있다. 늙은 몸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면서도 늙어서 아픈 몸은 일상생활의 균열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이와는 달리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사정이 좀 다르다. 일단 내 몸이 아니기에 "타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타자의 신체에 나타난 피상적인 특징들"<sup>51)</sup>이 일차적이다. <귀소술회가>에서 노년 여성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늙은 몸에 놀라고 낮설어하며 한탄한다. 자신도 80세 고령으로 늙은 몸이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거

---

<노탄가>의 작품 해석에 있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본고가 <노탄가>의 작품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칫 본고의 초점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어 그에 관한 논의를 본문에서 하지 않고 각주를 통해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도록 한다.

51) 장영란, 「늙음의 현상과 여성주의 윤리」, 『동서철학연구』 제51호, 한국동서철학회, 2009, 309면.

의 언급하지 않고 내용의 대부분을 오랜만에 만난 친정 형제중반들에게 할애하고 있다. 여기서 외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포착되는 점은 아름다움의 상실로 인한 ‘변화’된 모습이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젊음은 곧 아름다움이고 대단한 미모가 아니더라도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여겨지곤 한다. 게다가 갖가지 꽃으로 비유될 만큼 인물이 출중한 여성이었다면 젊은 시절의 미모는 가문 내에서도 알아줄 정도였을 것이다.

<귀소술회가>에서 묘사된 여러 여성들은 젊었을 적 아름답기로 소문난 인물들이었던 듯하고 그런 까닭에 몰라보게 변화된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여성으로서 바라보는 그녀들의 모습은 한심스러우면서 동시에 처량하기도 하다. 타인에 대한 이러한 ‘연민’의 시선은 결국 타인과 자신을 아우르는 ‘우리’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즉 ‘부유 같은 우리 인생 백년이 무상하다’ ‘공수래공수거가 우리 인생 아닐런가’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와 같은 구절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타인의 몸에 시선을 주목하다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의 문제로 환원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작품의 결사부분은 ‘죽는 길만 바뻏으니 다시 놀기 어려워라’ ‘이생의 못한 일을 후생으로 미뤄두고 남은 술마저 부어 만취하여 즐겨보세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부르짖는 소비와 향락을 부추기는 작품들의 정서와는 사뭇 다르다. 50년 만에 성사된 귀한 모임이었기에 이런 기회가 앞으로 없을지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임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즐겁게 놀아보자고 권유하는 목소리에는 오히려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묻어나기까지 한다.

한편 노년기 여성의 게으르고 염치없는 몸을 문제 삼았던 세 번째 경우는, 자신의 몸이 아닌 타인의 몸을 바라보는 점에서는 두 번째와

같다. 그러나 <노부인가라>의 서술자가 철저히 노부인의 늙고 추한 몸  
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다르다.

여기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게으른 몸'이다. 전통시대 여성은  
철저히 가족 내적 존재로서 한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규범적 여성상  
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였을 뿐 여타의 다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았  
다.<sup>52)</sup>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 가운데 중요하게 강조된 것 중의 하나는  
'부지런함'이었다. 「우암선생계녀서」에서도 '일 부지런히 하는 도리라'  
고 하여 가모(家母)로서 부지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sup>53)</sup> 「사소절(士小  
節)」에서도 세수도 잘 안하고 머리도 잘 빗지 않는 게으른 여성을 지적  
하는 대목이 있다.<sup>54)</sup> 『초당문답가』의 <용부가>에 나오는 뽕덕어미는  
'물레 앞 씨아 앞에서 선하품에 기지개 켜는' 게으른 여성으로 비난받  
는가 하면, <부인잠(婦人箴)>에서는 '몸 편하고 일 없으면 간악(奸惡)  
이 절로 나고 여공(女工)에 참척하면 사심이 물러간다'고 하여 여성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노부인은 흥측하게 늙은 모습에 머리, 얼굴, 옷매무새도 더럽

52)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  
문학회, 2002, 315면.

53) “일 부지런이 흐는 도리라 텃즈황후도 노지 아니흐시고 부지런이 흐신 말씀을 밍  
즈게서 일너계시니 선비 안히 일 부지런이 아니흐고 부모를 엇지 섬기며 즈손을  
엇지 기르리오 잠 아니 즈고 밥 아니 먹으며 과이 익써 병나는 부인도 잇거니와  
그는 곱혀여 흘 것 아니는 심중의 노지 아니흐즈 흐면 옛 언문고담을 어너 결을  
에 흐리오 구고와 지아비 섬기기와 노비와 즈식 거느리기 다 가모의게 달엿스니  
직습 삼가홀 일이요 제사와 방적과 장담우고 죠석 양식 출입과 빅가지 일이 다  
가모의게 잇스니 어너 쥍의 게우르고 즈홀 마음이 잇스리오 이럼으로 가모 부지  
런히야 그 집을 보존흐고 게우르면 기한의 골몰혀야 즈손의 혼취 못흐면 남도 천  
이 녀이고 너 몸이 곱혀여 마음이 붓그러온지라 부디 부지런흐기를 위쥬혀려라”  
(송시열, 「우암선생계녀서」 (김종권 역주, 『내훈·계녀서』, 명문당, 1986, 252~  
253면)

54) “상추쌈을 즐겨 먹고 하루 걸러 세수도 앓고 머리도 안 빗으며, 이야기책을 읽다  
가 낮잠을 자고, 어린 계집종이 도둑질을 해도 막연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게으른  
부인이다.”(이덕무, 「사소절(士小節)」 제7부의(婦儀) 1 성행(性行), 『국역 청장관  
전서』 6(민족문화추진회 편, 술, 1997, 119면)

고 추하다. 자신의 몸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형편에 가장이나 자식들 차림에 신경 쓸 리 없고<sup>55)</sup> 해야 할 일은 집안의 젊은 색시한테 한 가지씩 맡긴다.<sup>56)</sup> 그러면서도 ‘치산에 골몰하다보니’ 또는 ‘눈이 어두워서’ 등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 한다. 비록 “노년이라는 것은 많은 핑계거리가 되고 여러 제약들도 덜어주므로 노쇠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을 거기에 내맡기고 포기하는 편이 덜 피곤하다”<sup>57)</sup>고는 하나 도가 지나칠 때는 불쌍사나울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소절」에서의 추운 겨울날 새벽에 일어나 직접 죽을 쑤어 노비들을 먹이는 등 몸소 아랫사람을 돌본 70세 노부인의 사연<sup>58)</sup>은,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아랫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이끌어간 모범사례일 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한결같이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솔선수범하는 이상적인 여성사례로도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노부인가라>의 노부인은 온통 비난받을 행태만 보이는 듯하다.

‘게으른 몸’과 더불어 문제되는 것은 ‘염치없는 몸(주책없는 몸)’이다. 이웃집에 잔치가 있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설치고, 젊은이들 노는 자리라면 초대받지 않아도 먼저 가고, 나이 많은 것을 내세워 편한 자리 차지하고, 듣기 싫은 긴 얘기를 혼자서 계속 한다. 더구나 먹고 싶은 음식도 매우 많아 그 생각에 병이 날 지경이다. 그런데 가사작품에서 먹는 욕심이 있는 여성은 대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sup>59)</sup> 예를 들

55) “그장죽식 치장얼낭 눈어덥다 칭탁호고” <노부인가라>

56) “그너집의 절문식세 한가지씩 띄기다가” <노부인가라>

57) 시문 드 보부아르(2002), 앞의 책, 396면.

58) “양성재(楊誠齋)의 부인 나씨(羅氏)는 나이가 70여 세인데도 매양 추운 겨울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몸소 죽을 쑤어 노비들을 두루 먹이고 나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아들인 산동선생(山東先生)이 “추운 날씨에 왜 것처럼 괴로운 일을 하십니까?” 하니 그 부인은 “내 자신이 이런 일을 즐기기 때문에 추운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이덕무, 「사소절」 제7부의(婦儀) 2 사물(事物), 『국역 청장관전서』 6(앞의 책, 158면))

59) 정인숙, 「19세기~20세기 초 가사에 나타난 근대 도시 공간의 소비와 유희」,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295면.

어 <용부가>에서 뽕덕어미가 집안일은 등한시하면서 ‘옛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는 것이나 최찬식(崔瓚植)의 <부랑자경고가(浮浪者警告歌)>(1918)에서 ‘의복음식 별 사치로 돈 없고는 못살겠네’라고 하여 여성이 의복과 음식에 사치를 부려 낭비하는 사례를 경고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사소절」에서도 여성은 음식을 탐내지 못하도록 엄히 교육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sup>60)</sup> 부녀가 음식을 탐내면 집안을 망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노부인은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물론 작품에서 서술자가 노부인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에는 노년의 여성으로서 지키고 싶은 일종의 자존심이 담겨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장날이 되었는데도 장봐올 것을 시키지 않자 걱정하며 구입해야 할 물건들을 일일이 얘기해 주었는데도 남편이 ‘무슨 일에 틀어졌는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노부인은 몹시 서운해 한다.<sup>61)</sup> 결국 ‘석가여래 등신같이 벽만 지고 앉았느냐’고 심한 말을 하며 식기, 대접을 던지는 패악한 행동을 하지만<sup>62)</sup> 이는 안주인으로 마땅히 챙겨야 하는 사항들을 진지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무시하고 한 마디 대꾸도 없는 데 서운하고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입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점, 자신의 일을 무시하는 점이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젊은이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골을 내는 것도<sup>63)</sup>

60)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는 먼저 음식 탐내는 것을 금해야 한다. 딸의 경우는 더욱 조금도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탐내게 되면 정혜(丁奚), 감적(疝積) 등 모든 병이 생길 뿐 아니라, 그 탐욕으로 인하여 사치할 마음이 생기고, 사치로 인하여 도둑의 마음이 생기고, 도둑의 마음으로 인하여 사나운 마음이 생긴다. 음식을 탐내는 부녀가 남의 집을 망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이덕무, 「사소절」 제7부의(婦儀) 2 교육(教育), 『국역 청장관전서』 6(앞의 책, 138면))

61) “잇트지고 속트진드 이시간은 니리살면 너혼자 다먹을가/무선일이 틀어져서 말티 쉼도 안니호오”<노부인가라>

62) “식끼되접 뒤던지며 문난갑설 다할적익”<노부인가라>

자신의 부탁이 무시되었다거나 혹은 자신을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고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생각될 때는 매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과 음식 타령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엉덩이춤’이 절로 날 정도로 행복해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작품 속 노부인은 늙었다고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늘 염려했던 듯하다. 세수나 머리감기도 귀찮아하는 게으른 사람이, 혹여 남의 잔치에 빠질까봐 새벽부터 설쳐대고 특별히 불러주지 않아도 젊은이들 모임에 꼭 끼려고 하는 것 등이 그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병치레를 자주 한다’는 서술자의 시선과는 달리 노부인 스스로 아직 ‘무병하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욕심내는 것도, 병든 늙은이로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 <귀소술회가>에서 타인의 몸을 묘사하면서도 연민의 시선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과는 달리 <노부인가라>에서는 규범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서술자에 의해 노부인의 추한 몸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노부인이 겪는 노년의 소외감이나 불안감 등을 공감하지 못하는 서술자의 일방적인 시선만이 표면에 노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록 표면적으로 객관화된 여성의 몸은 게으르고 염치없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하더라도 그 안에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 젊은이들에게 소외되고 싶지 않은 노년의 욕망이 발견된다. 게으르고 추한 몸으로 인식된 노부인의 이면에서 오히려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는 결국 노부인을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 존재로 재인식하게 하는 해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63) “가너집의 절문식세 한가지씩 킷기다가/ 지진즉 안희휴면 괴중에 골이이셔/ 머리 설설 헌덜면서 버벗넙드 허너하고” <노부인가라>

## 5. 맺음말

조선조 마지막 궁중 여류시인으로 평가되는 최송설당(崔松雪堂)도 <감회(感懷)>라는 작품에서 늙음을 탄식하며 '노익장(老益壯)이란 허언(虛言)'이고 늙으니 '마음까지 줄어들다'고 표현한 바 있다.<sup>64)</sup>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위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년은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한 문학은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가? 본고를 준비하며 끊임없이 반복했던 질문이다.

본고에서는 노년, 여성, 몸의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자신의 아픈 몸, 타인의 늙은 몸, 타인의 추한 몸에 주목했던 규방가사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범위를 보다 넓혀 가사에서 포착하려 했던 노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년의 외로움은 작품마다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듯한데 <생조감구가>나 <수심탄>에서 여성이 느끼는 외로움이 주로 일가의 자손들, 가문내의 혈육들을 볼 수 없는 데서 연유한다면, 홍원장의 <상심화전가>에서 남성 작자가 느끼는 외로움은 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없다는 데 연유한다.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은 거의 다 죽고 이 세상에 '혼자 남은' 남성 작자는 과거의 추억을 공유할 만한 친구가 곁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애통해한다.<sup>65)</sup> 그런가 하면 구강(具康)의 <기수가>에서는 나이 들어 인생을 회고함에 있어서 출세가도를 달렸던 북성거사의 화려했던 삶보다 일상의 편안함과 가족을 곁에 두고 외

64) “로장은 무용이라 기력이 점쇠하니/로당익장 허언일세 마음까지 줄어들다”<감회>(정후수·신경숙·김종순 공역, 『송설당의 시와 가사』, 어진소리, 2004)

65) “청춘은 어제러니 빅발은 무스일고/…명환흔 이노물이 츠세에 혼자나마/…구원이 길이머러 어덕를 의디허리/ 디하의 녀원친구 저러트시 만하시니/ 겨강산 도흔 풍경 다시모혀 놀녀하니/ 유명이 달나디니 녀시나 도라올가” <상심화전가>(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롭지 않게 사는 남호거사의 소박한 삶에 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길쌈하는 아내와 나무하는 소동(小童), 물 길는 소비(小婢), 글공부하는 자식을 곁에 두고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맛보며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sup>66)</sup> 규방가사의 여성 작자들이 바라는 노년의 삶의 지향과 맞닿는 지점이 포착되기도 한다. 이처럼 노년의 문제는 성별이나 성장 배경,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그 양상과 의미가 다양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그 실상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후속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편

- 『규방가사-신변탄식류』 I, 권영철 편저,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1~591면.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회,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15집, 1970, 367~484면.  
 「우암선생계녀서」, 송시열, 김종권 역주, 『내훈·계녀서』, 명문당, 1986, 197~272면.  
 『송설당의 시와 가사』, 정후수·신경숙·김종순 공역, 어진소리, 2004, 1~423면.  
 「사소절」,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청장관전서』 6, 숲, 1997, 1~191면.  
 『주해 초당문답가』, 정재호, 박이정, 1996, 1~351면.  
 『한국고전문학신자료연구』, 박요순, 한남대학교출판부, 1992, 1~611면.

66) “송하의 돌벼기로 놓게누어 잠든등의/ 어린즈식 독서성의 선잠을 썩어안져/ 천상의 밭을담고 보리탁주 서너사발/ 통연이 마신후의 안주는 무셔신고/ 소천어 두어 드름 고초장의 돈회초라/ 막디집고 이러나서 낙민가 긴노리로/ 집으로 도라오니 석양이 거위로다” <기수가> (박요순, 『한국고전문학신자료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1992)

## 2. 논저편

- 김동준, 「질병 소재에 대처하는 한국한시의 몇 국면」, 『고전과 해석』 6,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77~110면.
-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1~294면.
- 박혜숙, 「정약용의 「老人一快事」와 노년의 양식」,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학회, 2009, 240~265면.
- 박혜숙 · 최경희 ·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회, 2002, 306~328면.
-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면.
- 서영숙,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93~119면.
- 윤영옥,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 『한민족어문학』 제3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1, 155~174면.
- 이상택, 「개화기 서사가사시교-생조감구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39, 진단학회, 1975, 139~160면.
- 이수곤, 「노년의 형상화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조선후기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313~338면.
-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37~51면.
- 장영란, 「늙음의 현상과 여성주의 윤리」, 『동서철학연구』 제51호, 한국동서철학회, 2009, 299~322면.
- 정인숙, 「19세기~20세기 초 가사에 나타난 근대 도시 공간의 소비와 유희」,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271~306면.
- \_\_\_\_\_,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67~106면.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 시각 · 쟁점 · 역사』, 창비, 2005, 1~446면.
-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1~443면.

시몬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책세상, 2002, 1~775면.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김소라 역, 『노년의 역사』, 아모르문디, 2010, 1~560면.

질 발렌타인, 박경환 역, 『사회지리학』, 논형, 2009, 1~464면.

키케로, 오홍식 역, 『노년에 관하여』, 궁리, 2002, 1~174면.

한네로레 슐라퍼, 김선형 역, 『노년의 미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5, 1~170면.

Abstract

## A Perception of old women's 'Old bodies/Sick bodies'

—On the focus of Gyubanggasa—

Jeong, In-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its meaning of old women's 'old bodies' or 'sick bodies' in Gyubanggasa. Commonly women perceive changes and pain in their bodies sensitively through their experiences in pregnancy, childbirth, breast-feeding or hard housework. So it's worthy of notice old women's bodies in literature.

The first, old women's sick bodies are perceived as a trace of their tough lives. Their sick bodies are perceived not a natural biological changes but a result of their tough lives. The second, old women's old bodies are perceived as a loss of beauty. Because old woman looks at another old women, she pays attention to their external changes for example their wrinkled faces or gray hairs. The third, old women's old and sick bodies are perceived as a laziness and shamelessness and ugliness because of their dirty living habits or greeds about food or disgraceful behaviors.

Old women's sick bodies that they perceive themselves are serious problem for them, because their sick bodies take their joys of daily lives. On the other hand, old woman looks at another old women, she feels pity and she forms bond of sympathy. Meanwhile, old women's lazy and shameless and ugly bodies can be read differently. In the text, old women's strong desire to recognize or

desire not to be neglected can be found, and old women's sound self-esteem also can be found. It's possible to change analysis from negative existence to positive existence.

Key words : old age, women, bodies, old bodies, sick bodies, self-esteem

논문투고일: 2010.9.30 / 심사완료일: 2010.11.10 / 게재확정일: 2010.11.18